

권혁재 기자의 不-완벽 초상화



설치미술가 김수자의 눈

“제 눈, 누가 봐도 우울해 보입니다. 심지어 ‘그루미 걸’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.

하지만 세상의 많은 아픔이 보이는데 어찌 우울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.

제 눈에 그 아픔이 보이면 무조건 그곳으로 떠납니다.

제 눈이 이끄는 대로 떠나고, 본 그대로를 세상에 보여주는 게 제 운명입니다.”